고은 불교대하소설

수미산

61

오성(悟性)에 이른 불이의 별빛은
광대한 사막 불탑의 잔해가 있는
중국대륙의 오지 누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영광

이미 불이와 합두의 마음이 일으킨 불덩어리와 기둥은 금륜(金輪)의 세계로 솟아났다. 그 불덩어리 기둥 밑부분도 가필코 그 참혹한 아귀계의 세상을 아주 어렵사리 떠날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을 앞둔 생명이 너무 질긴 의지때문에 좀처럼 죽을 수 없다가 맞이한 어려운 죽음 직후 방금 죽은 사체에서 영식(靈識)의 불꽃이 어디론가 하늘높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았다.

아귀계의 여러 아귀중생들이 그 불덩어리 기둥 밑부분에 매달려서 함께 아귀계를 떠나고자 하는 그 집념들 때문에 정작 불덩어리 밑부분은 그런 아귀들이 불에 데이거나 타거나 해서 퍼진 그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기도 하였다.

"제발 나도 함께!"

"나도 함께!"

"이 지독한 아귀중생을 어서 벗어나야지!"

"나도!"

"나도!"

"아 나도!"

이런 절규는 차라리 지식을 잃은 어미의 그것처럼 애절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귀계의 여러 곳을 감시하는 귀신들이 그들에게 이같은 갈망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지 않았다. '나도! 나도!'의 갈망 자체가 아귀계의 고통이 아니겠는가.

이제 아귀계의 업장이 다 소멸된 불이 합두의 불덩어리 기둥의 밑기둥을 이루고 있는 뜨거운 불도 변변치 않은 재만 남기고 떠나는 것이었다. 그런 불덩어리 끝에 아무리 매달리고자 무진 애를 써도 아귀중생의 어느 하나도 매달리는데 성공할 수 없이 그 험상궂은 마른 몸만 불에 타거나 데었거나 하는 고초만으로 남겨져 저만치 남루한 누더기 안에 지니고 있었던 것은 수백마리 이(蝨) 밖에 없었음에도 농민들의 미륵신앙과 결부되어 오랜 수탈과 착취에 견디다 견디다 못한 봉기에 뛰어들어 천하를 손아귀에 쥔 것이 아니었던가.

아무튼 불이와 합두가 아귀계를 그들의 찬란한 불덩어리 기둥으로 떠난 사건은 그 동안의 아귀중생들을 새삼 눈뜨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확신하였다. '이 세계 어느 한 구석에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 세계 전체가 완전한 세계, 즉 극락세계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금륜은 우주 가운데서 하나의 커다란 원반(圓盤)과도 같은 광면으로 이루어 졌다.

그 원반의 자름이 1백20만3천4백50유순이나 되므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본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니 그런 엄청난 길이는 '무수(無數)'인 것이다. 이 '무수'는 무한하다는 사실이기 보다는 우주적인 거대한 수(數)의 한 단위이다.

이런 '무수'의 크기는 금륜세계의 크기뿐 아니라 그것을 얹어놓게한 수륜(水輪), 수륜을 얹어놓은 풍륜(風輪)에 이르르면 다만 '무수' 단위의 유순으로써 이른바 '내겁(大劫)'이다.

이같은 우주로서의 풍륜은 그야말로 시작도 끝도 없는 우주의 허공 가운데 거대한 덩어리의 혼돈으로부터 이루어진 원반처럼 된 세계가 1유순, 즉 약 2리에 해당하는 단위로도 도저히 헤아릴 수 없게 실재하고 있다는 우주관이 5세기 무렵의 구사론(俱舍論)에 따라 알려진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주 자체에 대한 설명 이외의 중요한 지적이 있어 마땅하다. 그것은 불교에서의 시간에 대한 인식이 철저한 사실과도 관련된다.

이를테면 존재하는 모든 것, 살아있는 모든 것은 시간의 진행에 의해 항상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덧없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해석에 의해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생사윤회에의 확인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시간은 고대 인도에서의 모든 사색과 철리에서의 핵심이다. 그 땅의 한 우주적 수확이 거대시간을 말하는 것과 함께 또한 시간이나 수의 극소(極小)를 말하는 것과 함께 영(零)의 세계를 발견한 위대한 사건이야말로 수학과 진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찰나(크샤나)는 75분의 1초(秒)이다. 단찰나(旦刹那-탓크샤나)는 1백20찰나이고 엽박(臘縛-라바)은 60단찰나이다. 수유(須臾-무후르타)와 주야(晝夜-아호라트라)는 30수유, 월(月-마사)은 30주야, 1년(年-삼바트사라)은 12개월이다.

수유는 1시간에 가까운 시간이고 엽박은 1분에 해당한다. 단찰나는 1초인 것이다.

그 아래의 찰나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며 포착할 수 없는 극소의 시간이다.

특히 이 찰나는 굳이 그 내용을 말하건대 '모든 인연이 화합할 때의 법 자체를 얻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말한다.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 어떤 한 존재가 성립될 때의 시간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짧은 날의 싯타르타가 입었던 값비싼 카시산(産) 견직물(絹織物)의 그 미세한 비단실 몇줄을 두 성인남자가 팽팽하게 잡아당길 때 다른 남자가 시나(중국) 강도(剛刀)의 예리한 칼날로 대번에 절단할 때 한 줄이 절단되는 때의 64찰나가 걸린다는 설(說)로 보자면 실로 찰나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없는 미세한 세계인 것이다.

이런 시간으로부터 시작한 시간은 이윽고 겁(劫)의 시간으로 무한히 발전함으로써 그런 시간 가운데의 우주 속 풍륜이 전개되고 거기에 수륜, 그 수륜 위에 금륜이 있어 금륜의 그 광대무변한 바다 위의 몇 군데에 사바세계 섬부주도 떠 있는 것이다.

이런 세계의 한 군데에 지나지 않은 아귀계의 절대적인 고통으로부터 받을 만큼 받은 고통 끝에 불이와 합두는 하나의 불덩어리 기둥으로 그곳을 떠나 우주의 한 공간에서 숨을 쉴수 있었다.

불의 왕은 빛나고 있네
불의 왕은 빛날 뿐 아니라
우주의 한 쪽을 태우기 시작하였네
하지만 불의 왕은
한군데 있지 않고
언제나 옮겨다니며
그 모습도 바뀌어지네
마치 저녁 낙조의 새빨간 구름처럼

이제 지하의 아귀계와 지상의 인간계에 이어질뻔 했던 불덩어리 기둥은 조금씩 그 위력이 줄어들면서 한 줄기 불빛으로 그어지는 유성(流星)의 모양이었다가 사람이 눈을 비볐을 때 하나가 두개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두개의 불빛의 별로 갈라지고 있었다.

"아아!"

라는 어떤 감탄사가 들렸다.

"으응!"이라는 무거운 신음소리도 아주 오래동안 병들어 있는 환자의 입에서라도 나오는 것처럼 나와서 들리는 것이었다.

그만큼 그 불덩어리 기둥의 장관이 소멸되는 과정이나 소멸된 뒤의 두 개의 작은 별로 적요한 빛을 어떤 힘의 과시(誇示)도 없이 비추어 주기 시작하는 그 소멸에 가까운 광경도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저렇게 슬픈 것을!"

"저렇게 슬프고 아름다운 것을!"

이런 소리도 들렸다.

과연 두 생명의 애욕이 만들어서 그 애욕속의 정진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로부터 떠나 새로운 세계에 태어난 삶의 시작은 이렇게도 비장한 소멸의 무상감(無常感)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제 불이 합두의 그 무서운 열정은 차디찬 별빛으로 떠서 불이와 합두라는 별로 탄생하는 찰나의 시간으로부터 다시 우주의 편력을 시작하는 것이다.

불이는 지난 날 사바세계 고려의 정치적 비운의 시인 후신답게 그의 적요하기 짝이 없는 별빛을 어느 사막에 보내고 있었다.

빛이란 어떤 방향으로만 비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빛의 오묘한 의지는 어느 곳을 그리워한 나머지 그곳을 특정적으로 비치는 일도 하는지 모른다.

불이 합두는 차디찬 별로 탄생 다시 우주의 편력을 시작했다

아니 그런 빛이기 전에 그 빛을 받아들이는 대상의 절실성 자체가 다른 곳의 눈들이 방치하고 있을 때 오직 어느 한 눈이 그 빛을 간절하게 향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불이의 별빛은 이제 더이상 합두와의 애욕으로 늘어붙지 않는 일종의 오성(悟性)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의 빛은 하늘 높이 떠서 다른 별들이 보내는 차가운 빛과의 교차를 되풀이한 나머지 이윽고 저 아래 캄캄한 지상의 한 지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곳에서도 불이의 별을 우러러보는 어떤 대상이 있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중국대륙의 오지(奧地)인 누란(樓蘭)이었다.

누란, 그 광대한 사막 한 복판의 폐허에 남겨져 있는 불탑(佛塔)의 잔해가 있는 점토질의 흙덩어리 작대기에 서 있었다.

그림 · 조향숙

불을 가르, 법화 가르

부처님 말씀은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튼튼한 다리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불교 서적, 나아가서 불교 문화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신 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정신 문화를 가꾸어 가는 주역들입니다.

" 항상 친절한 안내로써 맞아주기에 항상 편안히 책을 고를 수 있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형서점에서도 구할 수 없는 불서를 쉽게 구할 수 있어 무엇보다 반갑습니다. "

" 책방 여시아문에 와 보면 불교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뿌듯해집니다. "

책방 여시아문에 거는 불자 여러분의 기대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고 날카로운 지적 바로 전문가의 그것과 견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당장 실천하기 어려운 주문들도 있지만 불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만 있다면 제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책방 여시아문도 꼭 해 낼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가장 훌륭한 다리라면 책방 여시아문은 여러분과 부처님 가르침을 잇는 더욱 튼튼한 다리이고자 합니다.

책방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95 베스트 20선

아래 베스트 20선은 1995년 한 해 동안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불서들로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입니다. '좋은 불서와의 뜻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십시오.

1. 금강경강의 / 무비 · 불광출판부 · 5,500원
성철 중 역 · 사례 인용한 금강경 한 모든 해설서

2. 기도 / 일타 · 효림 · 5,000원
일타 스님 기도 상의 영험담 모음집 올바른 기도법 제시

3. 삶에서 깨어나기 / 탁낫한 · 정경각 · 5,500원
탁낫한 스님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수행 · 명상법 찾기

4. 알기 쉬운 불교 / 불교방송 편성부 · 불교방송 · 5,000원
불교방송의 '라디오 선좌' 신행상담 담변 묶음

5. 영원한 자유의 길 / 성철 · 장경각 · 2,500원
성철 스님의 '자기를 바로 돌시다' '생명의 광보음' 등 13편이 엮어 모음

6. 하산 / 홍주 · 불지사 · 5,500원
상반되는 두 수행승의 갈등과 그리움 통해 '진정한 해탈 좋아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제기한 선적 구도소설

7. 영가선혼법어 / 석상우 외 · 토방 · 15,000원
월명 · 승산 스님 등 고승들의 영가법문

8. 선 백문백답 / 최재 · 파라나라 · 3,000원
생전대중과의 문답으로 밝힌 선의 요체

9. 사람, 그 속에 깃든 의미 / 김현준 · 고보문고 · 7,000원
선과 악을 등 사람에 있는 모든 조형물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발췌다

10. 히말라야, 인도에 빠진 닥터 / 김현탁 · 효림 · 8,000원
카톨릭의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았던 한 의사의 인도 구도 이야기

11. 등신불 1, 2 / 석용산 · 문학수첩 · 각 6,000원
불교사상 최초의 등신불이 된 성교자 스님의 구도적 생애를 거울로 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투영한 장편 구도 소설

12. 나를 보게 하소서 / 현장 · 민족사 · 5,500원
성불을 선(禪)의 사원으로 살아온의 10여년간 수련지도 중 새로 현장 스님의 법문선 이야기

13. 나는 누구인가 / 라마나 마하리쉬 · 정하 · 5,000원
'것다나 제수의 참된 존재라고 직관 방법인 라마나 마하리쉬의 생애의 가르침, 마이탈구집, 하는 수행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둘 필독서

14.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 일타 · 효림 · 5,000원
'초발심 가정문' 가운데 바로 비구의 '계경문'을 줄이한 것으로 수행자의 마음가짐 등, 불교입문자에게 꼭 필요한 수행 방법을 알려 준다

15. 도가 본시 없는데 내가 무엇을 해쳤겠나 / 이청 원음 · 동지 · 6,500원
지난 4월 조계종 사태 때 주대 140일간에 종정직을 마남던 서암스님이 당시의 상황과 심정을 밝힌 회고록

16. 달마의 제자들 / 고우림 · 불지사 · 5,500원
달마를 기조로 중국 선불교의 법맥을 이어온 조사들과 한국 고승들의 사연한 구도 행장기

17. 선 1, 2 / 고은 · 실직과 비평사 · 각 6,500원
달마가 중국 선종의 개조가 될 때부터 6조 혜능 이후 남종선과 북종선으로 분파되기까지의 선종의 역사를 그린 본격 선 소설

18. 예불하는 마음에 자비를 / 권영한 · 진원문화사 · 15,000원
사람을 처음 찾는 이들이 잘 모르는 사찰 예절에서부터 불 법을 찾는 이들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최소한의 상식을 담기 쉽게 설명했다

19. 부처님 말씀 / 성철 · 현암사 · 13,000원
초기 경전인 아함경 가운데에서 발췌한 것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20. 42장경 1, 2 / 오소 라즈니쉬 · 상하출판 · 각 7,500원
42장의 시편으로 구성된 42장경을 라즈니쉬의 페이소스 넘치는 유머와 함께 즐겨 읽을 수 있는 새로운 감각의 불전 읽기